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초등학교 6학년 음악교과서 이해영역 분석 연구

최영식

2014년



석 사 학 위 논 문

초등학교 6학년 음악교과서 이해영역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for the 6th graders focused on  
comprehension area  
under the revised 7th national music  
curriculum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최 영 식

2014년 8월





석 사 학 위 논 문

초등학교 6학년 음악교과서 이해영역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for the 6th graders focused on  
comprehension area  
under the revised 7th national music  
curriculum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최 영 식

2014년 8월

초등학교 6학년 음악교과서 이해영역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for the 6th graders focused on  
comprehension area  
under the revised 7th national music  
curriculum

지도교수 조 치 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최 영 식

2014년 5월

최 영 식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6월



## 목 차

국문 초록 .....	x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내용 .....	2
3. 연구의 제한점 .....	2
<b>II. 이론적 배경</b> .....	3
1.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	3
가. 초등음악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	3
나.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비교 .....	6
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이해영역 비교 .....	8
2. 초등 음악이론 교육의 중요성 .....	9
3. 선행연구 .....	12
<b>III.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이해영역 분석</b> .....	14
1. 교과서 구성 체계 분석 .....	14
가. 교과서별 제재곡 분포 비교 .....	14
나. 교과서별 구성 체계 비교 .....	14
2. 이해영역에 따른 교과서 분석 .....	16
가. 박자 .....	16
나. 조성 .....	17
다. 화성 .....	19
라. 빠르기 .....	20
마. 셈여림 .....	20
바. 음역 .....	22
사. 형식 .....	23
<b>IV. 요약 및 결론</b> .....	25
1. 요약 .....	25
2. 결론 .....	26
<b>참고 문헌</b> .....	29
<b>ABSTRACT</b> .....	31

## 표 목 차

〈표 1〉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비교 .....	7
〈표 2〉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이해영역 비교 .....	8
〈표 3〉 교과서별 제재곡 수 .....	14
〈표 4〉 단원 구성식 교과서 비교 .....	15
〈표 5〉 박자 비교 분석 .....	16
〈표 6〉 교과서별 박자에 따른 제재곡 비교 .....	17
〈표 7〉 조성 비교 분석 .....	17
〈표 8〉 교과서별 조성에 따른 제재곡 비교 .....	18
〈표 9〉 화성 비교 분석 .....	19
〈표 10〉 빠르기 비교 분석 .....	20
〈표 11〉 셈여림 비교 분석 .....	20
〈표 12〉 교과서별 셈여림에 따른 제재곡 비교 .....	21
〈표 13〉 음역 비교 분석 .....	22
〈표 14〉 교과서별 음역에 따른 제재곡 비교 .....	23
〈표 15〉 형식 비교 분석 .....	23
〈표 16〉 교과서별 형식에 따른 제재곡 비교 .....	24

## 국 문 초 록

### 초등학교 6학년 음악교과서 이해영역 분석 연구

#### 최 영 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음악교육전공

지도교수 조 치 노

초등 교과서의 한 영역인 음악은 많은 나라의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을 만큼 필수적인 과목이다. 우리나라에도 공교육이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음악교과를 법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음악이 아름다운 소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 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심미적인 경험을 하게하며 이로 인해 인간의 심성이 바르게 길러지고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교 교육에서 음악교과는 교육 기본법에 제시된 교육이념을 충족시키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이 변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음악교과의 이해영역 중 특히 이론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6학년 5종의 음악 교과서별로 이해영역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해영역이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고 이론 교육이 모든 유형의 음악 교수·학습에서 출발점이 되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습목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제재곡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국악곡의 비율이 대체로 높아졌으며 여러 가지의 박자 중에서도 4분의 4박자가 많이 실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성분포에서는 다장조의 곡이 가장 많이 실렸다. 화음은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비해 훨씬 다양한 화음을 사용했고, 교과서별로 빠르기말이나 셈여림 기호가 누락된 경우도 나타났다. 음역대는 1옥타브의 음역대를 가진 제재곡이 가장 많았고, 2도막 형식의 곡이 가장 많이 실렸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요구에 충족되는 음악이론 교재개발, 악곡에서의 음악이론 설명,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 차별성, 음악이론 교육 실기훈련의 통합, 현대음악에 대한 연속성 안내 및 음악의 기본적인 개념 체득과 같은 방안을 통하여 초등 음악이론교육을 좀 더 포괄적이고 집중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고,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관과 교육계획에 맞추어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초등 교과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 과목은 모든 나라의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을 만큼 필수적인 과목이다. 우리나라에도 공교육이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음악교과를 법으로 두도록 규정한 이유를 유추해보면, 음악이 아름다운 소리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체험하게 함으로써 느끼는 심미적인 경험을 하게 하여, 이로 이해 인간의 심성이 바르게 길러지고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교 교육에서 음악교과는 교육 기본법에 제시된 교육이념을 충족시키는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과과정이 변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다.(송인국, 2010, p.12)

음악교육에는 가창, 기악, 감상, 이론 등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총론에 따르면 음악의 기본 능력은 음악의 표현과 감상 활동 전반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악보 읽기와 쓰기, 음악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음악을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또, 가창을 위한 기본능력(발성, 따라 부르는 능력, 가락과 리듬을 분별하는 능력 등), 기악을 위한 기본능력(기본 주법, 악보 보고 연주하기 등), 창작을 위한 기본 능력(악보 읽기 및 쓰기, 기초 리듬 및 선율 만들기 등)도 기본 능력에 포함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140) 음악의 기본능력은 모든 음악 교수·학습유형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 기저에는 이론 교육이 차지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초등 교육 현장에서의 음악 이론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며, 그 수준도 교사가 알고 있는 음악 이론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교사가 기본 음악 이론 지식이 부족하고,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만으로는 학생들이 음악적 이론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가 가르치기 쉽고, 아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구분한다면 음악 이론교육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다섯 종류의 음악 검정교과서의 이해영역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

첫째,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초등음악 이론교육의 중요성을 알아보며 이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한다.

넷째, 초등학교 6학년 음악 검정교과서의 내용 중 구성체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성체계는 서양악곡의 교과서별 수록 비율로 분석하고, 각 영역별로 비교한다.

다섯째, 이해영역에 따른 교과서 분석은 박자, 조성, 화성, 빠르기, 셈여림, 음역, 형식의 요소로 나누어 각 교과서별 특징과 차이점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위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에 제시된 제재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 감상이나 기악곡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분석영역은 박자, 조성, 화성, 빠르기, 셈여림, 음역, 형식의 7가지 요소로 제한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 가. 초등음악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의 방향과 실천 내용을 제시하는 학교 교육 지침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향하는 교육 이념과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인간상, 이러한 인간상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125)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사회적 변화 및 학문의 발달 등을 배경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사회 및 산업구조의 발달과 이에 따른 학문의 변화, 그리고 학습자들의 새로운 요구는 국가 교육과정이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변화를 예측하여 준비하는 선도자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국가·사회적 그리고 학문적 요구와 제7차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 및 교과 교육 내용의 개선점, 즉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수준별·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학습량 및 수준 적정화, 학교급·학년·교과간 내용의 연계성 강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등의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및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및 내용 체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음악과 교육과정 또한 학교 음악 교육이 지향하는 기본 철학과 목표,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음악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의 내용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서로, 이러한 요구에 따라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읽고, 학문적 발달과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이를 음악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인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 우리 음악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악 교육, 활동 중심

의 음악 교육,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음악 교육, 타당성 있는 음악과 평가 등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국가·사회 변화와 학문적 발달,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인간상과 구성 방침을 바탕으로 하여 개정되었다. 그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음악의 역할 및 음악 교육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음악은 인간 개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사회적 의미를 표현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이어 전수하는 기능이 있다. 이처럼 음악은 인간 개인이나 한 시대, 특정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그 역할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음악 교육을 통해 그 교육적 효과가 학생들의 삶 속에서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따라서 음악의 역할과 음악 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서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추구하였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양이 많고 수준이 높다는 문제는 교육과정 현장 적용 연구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수업 시수, 학생들의 요구와 수준의 반영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활동 영역의 처음 부분에 제시된 표현하기의 학습 요소는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영역의 학습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되, 표현하기 학습 요소의 성취는 학생이 보다 수월하게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하위 학습 영역인 노래 부르기 또는 악기 연주하기 중 하나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로써 교사는 동일한 학습 요소에 대한 평가를 중복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교수·학습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셋째, 국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악 교육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악 교육의 양적 팽창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현장에서 국악을 다루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이에 내용, 방법, 평가 등 교육과정 전반에서 국악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교 음악 교육을 통해 배운 바를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 음악을 배우는 목적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적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예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여 문화적 교양인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편중된 음악적 취향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습득한 다양한 음악 활동을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수용하도록 하였다.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제는 휴대전화 하나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접촉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 그만큼 문화적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학교의 음악 교육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음악과 선택 과목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선택 과목은 교육과정은 학생의 소양증진과 함께 진로·적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택 과목 교육과정의 개정은 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의 소양 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르와 매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진로·적성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경험과 수준, 진로를 고려하여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개정은 선택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하여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단순한 내용의 최신화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시대가 원하는 음악적인 역할의 요구 사항과 학습자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에 걸맞은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었다.

이해영역은 음악적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는 학습영역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28) 우리나라 초등 음악교육과정에서 이해영역이 등장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이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면 1980년대에 음악 교육 학자들에 의하여 파급되기 시작했던 여러 이론들이 점차 제6차 음악과 교육 과정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제6차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구성되었다. 그 중 내용은 이해, 표현, 감상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도 내용으로 제시되었고, 이해는 음악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131)

이해영역이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1차 교육과정 시기에서 초등학교 음악과의 목표에 이론적인 부분과 태도 및 습관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놓았던 것이 제2차 교육과정 시기에서 지도내용이라는 부분으로 분리되어 학년별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그 후에 제5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내용 부분에 이론적인 구성 요소 파악과 감상 및 표현을 포함하고 있던 것이 제6차 교육과정 시기에 이르러 완전히 세분되어 음악 이론, 즉 음악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이해영역으로 분리되어 나타나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p.128~143)

음악의 구성요소는 제4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가창, 기악, 창작, 감상에서 지도해야 할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제4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리듬, 가락, 화음,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의 일곱 가지 요소로 명시하였고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명시되어 있다.

#### 나.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비교

제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음악교과 이해영역은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의 7가지 요소로 보다 세분화 되었으며 각 요소에서 지도해야 할 부분을 학습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세부 영역을 하나로 묶어 놓고 지도해야 할 부분을 큰 개념으로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묶어보면 유사한 요소들을 리듬, 가락, 화성, 형식, 빠르기, 셈여림, 악보, 악기의 종류와 음색, 악곡의 특징, 악곡의 종류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6학년 이해영역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영역 비교

영역	교육과정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이해	리듬	·변박자 ·중중모리 장단 ·장단의 변화 ·여러 가지 박자와 장단의 리듬 풀	·여러 가지 박자 ·장단(중중모리), 장단의 한배 ·여러 가지 리듬풀(당김은 포함)
	가락	·가락의 구성 ·사장조/라단조 ·민요음계 ·시김새	·계이름
	화성	·3성부의 어울림 ·사장조/라장조의 주요 3화음 ·가락과 화음간의 관계	·조(육자배기조, 수심가조), 음계 ·주요 3화음
	형식	·비슷한 가락 ·계속되는 느낌/끝나는 느낌 ·메기고 받기 ·변주곡 ·오페라/판소리 등의 성악곡, 취타/교향악곡 등의 기악곡	·형식(한배에 따른 형식, ab,aba) ·악곡의 특징 (궁중음악, 의식음악, 표제음악 등)
	셈여림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	-
	빠르기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
	음색	·다양한 음원에 의한 소리 변화 ·음역에 따른 목소리 ·건반 악기 소리 ·연주 형태에 따른 소리의 조화 (중주, 관현악 등)	·여러 가지 악기의 종류와 음색 ·악곡의 조류(판소리, 창극, 가부키, 경극, 오페라, 뮤지컬 등 극음악)

6학년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리듬요소에서는 여러 가지 박자와 리듬풀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가락요소에서는 제시된 7차 교육과정에 비해 계이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상대적으로 7차 교육과정보다 축소되었던 화성요소에서 육자배기조 및 수심가조, 그리고 주요 3화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식요소에서도 다양화되었고 5학년 때까지 배웠던 셈여림과 빠르기 요소는 아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색요소에서는 5학년까지만 종류의 악기가 제시되었던 것과는 달리 여러 가지 악기의 종류와 음색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같이 2007 개정 교육과정의 6학년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비해서 그 변화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이해영역 비교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따른 학년별 이해영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2>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이해영역 비교

학년 영역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li> <li>·장단(자진모리), 장단의 세</li> <li>·간단한 리듬꼴</li> <li>·시김새의 특징</li> <li>·올라가는 가락, 내려가는 가락</li> <li>·메기고 받는 방식</li> <li>·악곡의 빠르고 느림</li> <li>·소리의 크고 작음</li> <li>·타악기의 종류와 음색</li> <li>·악곡의 특징 (풍물, 춤곡, 행진곡 등)</li> <li>·쓰임에 따른 악곡의 종류(놀이요, 노동요, 춤곡, 행진곡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박, 여린박</li> <li>·장단(세마치), 장단의 세</li> <li>·간단한 리듬꼴</li> <li>·단순한 가락</li> <li>·시김새의 특징</li> <li>·같은 가락과 다른 가락, 비슷한 가락</li> <li>·치레가기와 뛰어가기 가락</li> <li>·빠르기의 점진적 변화</li> <li>·소리 크기의 점진적 변화</li> <li>·관악기의 종류와 음색</li> <li>·악곡의 특징 (관소리, 병창, 행진곡 등)</li> <li>·쓰임에 따른 악곡의 종류 (지역전승음악, 계절음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자</li> <li>·장단(굿거리), 장단의 세</li> <li>·여러 가지 리듬꼴</li> <li>·장단 꼴과 장단 세의 특징</li> <li>·말, 붙임새</li> <li>·음이름, 계이름</li> <li>·오선 악보, 정간보</li> <li>·조메나리조, 차우티령조)</li> <li>음계(장음계, 단음계)</li> <li>·시김새의 효과</li> <li>·화음</li> <li>·빠르기말</li> <li>·셈여림 기호</li> <li>·현악기의 종류와 음색</li> <li>·악곡의 특징 (중중음악, 관악기 모듬음악 등)</li> <li>·쓰임에 따른 악곡의 종류(축제음악, 풍류음악, 종교음악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가지 박자</li> <li>·장단(중중모리), 장단의 한배</li> <li>·여러 가지 리듬꼴 (당김음 포함)</li> <li>·계이름</li> <li>·조육재배기조, 수삼기조, 음계</li> <li>·시김새의 효과</li> <li>·주요 3화음</li> <li>·형식 (한배에 따른 형식 ab, aba)</li> <li>·여러 가지 악기의 종류와 음색</li> <li>·악곡의 특징(중중음악, 의식음악, 표제음악 등)</li> <li>·악곡의 종류(관소리, 창극, 가부키, 경극, 오페라, 뮤지컬 등 극음악)</li> </ul>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이해요소를 살펴보면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열성을 갖추어 점차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6학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박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리듬꼴은 간단한 리듬꼴을 익히고,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당김음이 포함된 복잡한 리듬꼴까지 익히게 된다. 가락은 3학년 때에는 올라가는 가락과 내려가는 가락을 구별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서 음이름과 계이름 및 각종 악보 보는 법과 가락이 모여서 나타나는 화음까지 크게 발전된 형태로 배우게 됨을 알 수 있다. 악곡의 형식도 기초적인 메기고 받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발전됨을 알 수 있고 악곡은 다양한 효과를 직접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하여 기호를 통해 악곡의 효과를 알 수 있도록 학습함을 알 수 있다. 악기의 종

류는 간단한 타악기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악기들로 발전하여 나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악기의 음색에 대해서 학습하게 된다. 악곡의 특징과 종류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간단한 놀이요부터 시작하여 점차 발전해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 및 다양한 종류의 음악으로 발전함을 알 수 있다.

## 2. 초등 음악이론 교육의 중요성

오늘날 음악교육은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음악의 기본 구성요소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해영역은 음악적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는 학습 영역이고, 음악을 구성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지식에 대한 학습을 말한다.

그러나 음악을 이루는 근본적인 지식은 많고 그것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음악의 지식 중에서도 우선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교육에서 개념의 학습은 1970년대부터 중요시 되었는데 그 이전의 학습에서는 대개 제재곡 자체를 중시하였고 그 제재곡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노래들 중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일부의 제재곡들이 음악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자연스럽게 제재곡을 이루는 근본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개념들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석문주 외, 2006, p.117)

개념 형성은 필요한 아이디어를 보편화 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학생들의 마음에 생겨나야 한다.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는 형성될 수 없고 단 한번만으로 배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형성된 음악적 개념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력을 촉진하고, 음악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며 음악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음악적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건이 된다. 학생이 하나의 음악개념을 형성하게 되면 그 개념은 다음 경험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그 경험은 처음의 개념을 변화·확대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음악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선율에 대한 개념이 형성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선율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음악형식 또한 일정수준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자신이 감상하거나 연주하고 있는 악곡의 형식에 관하여 생각하지 못할 것이고, 그 악곡을 분석할 수 없으므로 그 구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그 학생의 악곡에 대한 반응은 매우 제한적이고 미숙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음악적 개념들을 경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음악의 전체적인 특성과 원리를 알게 되고, 자신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음악적 아이디어들과 연결할 수 있게 되며, 결국 내면의 세계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음악적 성장에 있어서 이해영역은 가장 근본적인 뼈대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음악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최윤경, 2010, pp.3~5)

곽현규(2010)의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초음악이론 교육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음악 이론의 사전적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음악이론이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선율, 리듬, 대위, 화성, 형식 등 음악 구조에 대한 연구를 말하며 좀 더 폭 넓은 의미에서는 음악학에서 음악사를 제외한 모든 다른 분야, 혹은 체계음악학의 일부로서 음향학, 작곡법, 연주법, 기보법, 음계이론 등을 일컫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악이론은 실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음악이론을 익히는 것은 즐거움에 대한 어렵고 지루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렇듯 음악이론이란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다의적이나 분명한 것은 음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곽현규, 2010, 제11집.)

다음 내용 또한 음악적 이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음악의 기본 능력은 음악의 표현과 감상 활동 전반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즉 악보 읽기와 쓰기, 음악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음악을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창을 위한 기본 능력(기본 발성, 따라 부르는 능력, 가락과 리듬을 분별하는 능력 등), 기악을 위한 기본 능력(기본 주법, 악보 보고 연주하기 등), 창작을 위한 기본 능력(악보 읽기 및 쓰기, 기초 리듬 및 선율 만들기 등)도 기본 능력에 포함된다. 음악의 기본 능력은 모든 음악 교수·학습유형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p.140)

이와 같은 내용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내용으로 기본 능력이란 음악적 이론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등음악이론이 초등학생들의 음악교육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은 음악이론을 초등학생에게 어떻게 학습시켜야 하는지 그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은 곽현규(2010)의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초음악이론 교육의 개선방안」과 초등학교 음악과의 목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초등학생들의 요구에 충족되는 음악이론 교재를 개발한다. 초등학생의 교육 목적에 맞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며 교재 선택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음악이론이 실제 음악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늘 악곡에서 음악이론을 설명하도록 한다. 음악교과에서 이론의 규칙을 배우고 과정을 이해하며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습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음악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이며 결국 음악이론 교육의 목적은 실제 음악을 이해하게 하는데 있기 때문에 예제 악곡들을 교과서의 곡들로 설명하여 관심과 실제적인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실제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교과여야 한다. 중·고등학생과는 달리 초등학생들에게 맞는 차별성이 필요하다.

넷째, 음악이론 교육이 개념 지식을 심어주는 것에서 벗어나 실기 훈련과 통합하여 교육함으로써 경험을 통하여 음악이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현재 다루어지는 음악이론은 18~19세기 이론에 편중되어 있어 음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과거의 음악뿐만 아니라 현대 음악에 대한 연속성도 안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악의 기본적인 개념을 체득하도록 해야 한다. 음악의 기본 개념은 한꺼번에 습득되지 않으며 또한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상의 제한된 음악수업 시수 안에 많은 악곡과 그에 따른 모든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음악의 전체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선하여 학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의 기본적인 개념을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여러 이해영역 중에서도 이론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초등학교 음악교육에서의 목표에 이론교육은 기본적인 개념을 체득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함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 3. 선행연구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의 비교 연구,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악영역분석, 김인정 교과서의 내용 비교 연구, 3~4학년 감상영역을 중심의 음악교과서 비교 연구, 5~6학년 가창영역을 중심의 음악교과서 비교 연구 등으로 매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성희(2010)는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음악 교과서를 3~4학년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학년별 감상곡의 학습 목표와 평가 관점, 단원 제재곡과 감상곡과의 내용체계별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감상곡의 시대별, 작곡가별 구분까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음악 교육의 개념이 학습에 의한 지적 발전에서 생활 속의 예술인으로서의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9가지 다양하고 구체적 감상활동을 제시한 것에 비해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3가지로 줄어있음을 밝히며, 교사의 역할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하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연구 및 자료의 필요성을 들고 있는데 이를 위한 필수 요소가 교과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0개의 감상곡 중에서 독립된 단원으로 편성된 곡이 3개 밖에 없음을 밝히며 올바른 감상 태도와 생활화를 위해서는 감상곡의 독립단원 편성 및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혜정(2010)은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제재곡을 5~6학년 가창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과서 별 제재곡 구성을 분석하고 한국곡과 외국곡의 구성, 교과서별 제재곡 구성요소의 비교 연구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5~6학년 교과서의 가창 제재곡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였다. 제재곡을 단순 나열하여 구성된 교



과서와 단원구성식으로 구성된 교과서의 비교 연구를 통해 창의성 신장과 통합적 사고력 증진을 위해서는 단원구성식 교과서가 더 많이 출판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악부분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하였으나 외국곡의 경우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다른 여러 나라들의 다양한 음악이 수록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조용흠(2008)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4~6학년 음악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 관련 법규와 교과서 관, 교과서 연구의 주제와 연구방법, 교과용 도서 편찬의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하며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는 시기적으로는 좀 오래된 경향이 있으나 초등 음악 교육을 함에 있어 올바른 교재, 즉 교과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김웅기(2012)는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5학년 음악교과서의 이해영역을 분석하였다. 먼저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였고, 5학년 3종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이 종전보다 좀 더 포괄적이면서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교과서별로 장단점을 도출했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관 및 교육계획의 목표에 적합한 교과서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함을 밝혔다.

위의 연구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비교를 통해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특징, 목표, 교육 방법 및 중점 등을 살펴보았고, 올바른 교재를 선택해야 교수·학습에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학년별로 다르게 나타나 있는 교육과정 요소들을 분석해보며 학년 간의 연계성을 살펴볼 수도 있었다. 다만 5학년의 3종 교과서에 대한 분석연구만 있었고, 6학년 5종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6학년 5종 교과서의 분석을 이해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Ⅲ.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이해영역 분석

#### 1. 교과서 구성 체계 분석

##### 가. 교과서별 제재곡 분포 비교

본 논문에서 연구한 제재곡은 6학년 5종 교과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형태의 제재곡 중에서 국악부분을 제외하여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상영역으로 제시된 곡은 제외했다.

6학년 5종 교과서에는 85곡의 제재곡이 수록 되어 있으며 교과서별 곡수는 다음과 같다.

<표3> 교과서별 제재곡 수

출판사		제재곡 수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19
	(주)미래엔 컬처그룹	18
	천재교육	23
	태림출판사	14
	도서출판 태성	11

제재곡을 가장 많이 수록한 교과서는 천재교육으로 23곡을 수록하고 있으며 도서출판 태성은 11곡을 수록하여 가장 적게 수록 되어 있다. 이 2종의 교재를 제외한 교과서들은 보통 14~19곡 사이의 곡들을 수록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평균 17곡이 수록 되어 있다.

##### 나. 교과서별 구성 체계 비교

교과서별 악곡 구성 체계를 비교한 결과 도서출판 태성의 경우 4개의 단원체 계로 구성되어 있고, (주)금성출판사와 태림출판사는 6개, (주)미래엔 컬처그룹은 10개의 단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천재교육은 제재곡 나열식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단원 구성 체계를 취하고 있는 교과서의 단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단원 구성식 교과서 비교

(주)금성출판사	(주)미래엔 컬처그룹	태림출판사	도서출판 태성
<p>나가자! 달리자! 자연과 하나 되어 세계와 함께 지화자 좋다! 마음을 담아 내일을 향하여</p>	<p>함께 어울리는 음악 음악 속의 수채화 자연을 담은 노래 세계의 음악 속으로 더불어 즐거운 음악 오션지 위의 동화 풍요로운 음악 다양한 형식의 음악 아름다운 가락 함께 즐기는 음악</p>	<p>꿈을 키우는 음악. 자연 속의 음악 함께 어울리는 음악 지구촌의 음악 이야기가 있는 음악 생활 속의 음악</p>	<p>음악과 생활 음악의 이해 음악의 여러 모습 음악 발표하기</p>

(주)금성출판사는 6개의 대단원과 그 안에 5~7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원에 한 곡의 제재곡과 보충악곡을 두었다. 각 단원에서는 활동, 이해, 생활화의 영역을 통합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주)미래엔 컬처그룹은 10개의 단원을 설정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배열은 제재곡 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즐거운 노래와 보충악곡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단원에서는 활동이라는 영역이 포함 되어 있다.

태림출판사는 학습주제별로 6개의 대단원으로 구성하고 소단원에서는 제재 중심, 주제 중심, 통합 중심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 하고 있다. 태림출판사 역시 제재곡에 즐거운 노래, 보충악곡으로 되어 있다.

도서출판 태성은 4개의 대단원과 6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여 제재곡을 배열하고 있으며 즐거운 음악과 참고곡으로 되어 있다.

6학년 5종의 교과서의 구성 체제를 분석한 결과 (주)미래엔 컬처그룹, 천재교육, 태림출판사는 주제 중심보다는 제재곡 중심 단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금성출판사의 경우는 주제 중심 단원과 제재곡 중심단원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도서출판 태성은 모든 소단원명이 주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이 주제들을 살펴보면 그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지도해야 하는지 음악의 지도 내용이 전면에서 나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학이나 사회 등의 타교과에서 단원명을 보면 그 지도내용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구성이다.

## 2. 이해영역에 따른 교과서 분석

제7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생활화 영역이 추가되어 활동, 이해, 생활화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해영역 중 음악 이론 요소에 포함되는 박자, 조성, 화성, 빠르기, 셈여림, 음역, 형식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 가. 박자

<표5> 박자 비교 분석

출판사 \ 박자	2/2	2/4	3/4	4/4	6/8	12/8	변박자	합계
금성	1	1	3	9	2	0	3	19
미래엔컬쳐	0	1	1	13	3	0	0	18
천재	0	3	1	12	6	0	1	23
태림	0	0	1	8	3	1	1	14
태성	0	0	1	9	1	0	0	11
총횟수	1	5	7	51	15	1	5	85
비율	1.18	5.88	8.24	60.00	17.65	1.18	5.88	100.00

박자를 종합 분석해 본 결과 4/4박자가 51곡(60.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8박자 15곡(17.65%), 3/4박자 7곡(8.24%)의 순서로 나타났다. 금성과 천재, 태림 교과서는 변박자 제재곡도 수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과서별 박자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6> 교과서별 박자에 따른 제재곡 비교

출판사 박자	금성	미래엔컬처	천재	태림	태성
2/2	아 엘 레미				
2/4	카로부쉬카	비행기	당신께 기도를 아턴고틴 저 하늘 구름까지		
3/4	빠꾸기 키아 카하 키아 토아 종소리	종소리	구름	엄마야 누나야	아름다운 것들
4/4	우주자전거 봄바람 작은별 파랑새의 봄 바누와 잠보 브와나 아이 울 레 마모 나쉬 이르 아름다운 나의 벗	봄 오는 소리 연둑빛 세상 산마루에서 금강산 고향 땅 체체 콜레이 과투 요 오 메사요 자보 브와나 카시오페이아 가을 들관 빙빙 돌아라 잡자리	새 나라 새 주인 학교중 봄 오는 소리 푸르다 그림 그리고 싶은 날 푸른 산 푸른 들 금강산 별 가족 들국화 미래알 작은 돌 연날리기 할아버지 시계	꽃처럼 하얗게 미소 하나가 되자 푸른 바다 돌고래 음반 위의 천사 체체 콜레이 사자의 힘 잠보 브와나	등글등글 친구야 난 네가 좋아 행복을 주는 해님 시마마 카 풍가 알라피야 꿈이 크는 책가방 우주자전거 할아버지 시계 제멋대로 가는 시계
6/8	산새가 아침을 과수원 길	섬마을 나뭇잎배 끼리끼리	봄 과수원 길 친구야 줄루 자장가 등대지기 겨울나무	봄바람 등을 타고 과수원 길 나뭇잎 배	반달
12/8				금도끼 은도끼	
변박자	초록 바다 달레 달레 달레 가을맞이		초록 바다	초록 바다	

나. 조성

<표7> 조성 비교 분석

출판사 조성	장조						단조			합계
	다	바	사	나	내림나	내림바	라	다	가	
금성	7	3	5	0	1	1	2	0	0	19
미래엔컬처	6	5	5	0	0	1	1	0	0	18
천재	6	9	4	1	0	1	1	1	0	23
태림	1	5	3	0	1	3	0	0	1	14
태성	4	1	2	1	0	2	1	0	0	11
총횟수	24	23	19	2	2	8	5	1	1	85
비율	28.24	27.06	22.35	2.35	2.35	9.41	5.88	1.18	1.18	100.00
비율의 합	91.76						8.24			100.00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조성의 교육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계이름 읽기에 대한 지도를 함으로써 조성에 따라 계이름이 달라지는 것을 알려주고는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의 5종 음악교과서의 ‘조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장조, 바장조, 사장조, 내림마단조는 5종 교과서에서 모두 수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라단조도 태림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록되어 있었다.

5종 교과서 전체 조성을 분석한 결과 장조가 단조 곡보다 많이 수록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수록된 곡은 다장조-바장조-사장조의 순이었다. 단조는 라단조가 가장 많았고 그 외의 단조는 다단조, 가단조 각 1곡 씩 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장조 곡에서는 다장조, 바장조, 사장조의 3개 조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단조는 라단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더 세부적으로 각 교과서별 제재곡의 조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8> 교과서별 조성에 따른 제재곡 비교

출판사		금성	미래엔컬처	천재	태림	태성
장조	다	봄바람 작은별 바누와 아이 울 레 아 엘 레비 달레 달레 달레 아름다운 나의 벗	연둣빛 세상 고향 땅 파투요 카시오페이아 가을 들관 잡자리	학교중 구름 당신께 기도를 저 하늘 구름까지 할아버지 시계 겨울나무	사자의 힘	풍가 알라피아 아름다운 것들 할아버지 시계 제멋대로 가는 시계
	바	초록 바다 잠보 브와나 키아 카하 키아 토아	섬마을 체체 콜레이 오 데사요 잠보 브와나 비행기	새 나라 새 주인 봄 푸르다 초록 바다 푸른 산 푸른 들 들국화 줄무 자장가 아틴고틴 연날리기	꽃처럼 하얗게 초록 바다 음반 위의 천사 체체 콜레이 잠보 브와나	시마마 카
	사	산새가 아침을 과수원 길 뻐꾸기 카로부쉬카 마모 나쉬 이르	봄 오는 소리 산마루에서 금강산 끼리끼리 빙빙 돌아라	봄 오는 소리 과수원 길 금강산 등대지기	봄바람 등을 타고 과수원 길 푸른 바다 돌고래	난 네가 좋아 꿈이 크는 책가방
	나			모래알 작은 돌		반달
	내림나	파랑새의 봄			하나가 되자	
	내림마	가을 맞이	나뭇잎 배	그림 그리고 싶은 날	미소 나뭇잎 배 금도끼 은도끼	둥글둥글 친구야 행복을 주는 해님
	단조	라	우주자전거 종소리	종소리	친구야	
다				별 가족		
가					엄마야 누나야	

#### 다. 화성

<표9> 화성 비교 분석

화성종류 출판사	3가지 미만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이상	합계
금성	1	5	8	1	2	2	19
미래엔컬쳐	1	5	3	4	4	1	18
천재	1	4	6	5	5	2	23
태림	1	2	3	1	5	2	14
태성	2	0	1	3	0	5	11
총횟수	6	16	21	14	16	12	85
비율	7.06	18.82	24.71	16.47	18.82	14.12	100.00
비율의 합	50.59			49.41			100.00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화음을 화성의 범주에서 다루어 5,6학년에서 화음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5학년에서 화음 요소를 처음 제시하고 6학년에서 주요 3화음을 제시하여 실제 음악 활동을 통한 경험, 체험에 대한 학습을 더 강조하며 음악을 언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적 개념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반주 음악을 들으며 화음 느끼기, 2부 합창으로 노래하면서 화음감 경험하기, 피아노 연주를 통해 화음 파악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화음의 기능, 화음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의 ‘화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 3화음 위주의 곡이 제시된 경우는 50.59%로 절반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6학년 음악교과서의 악곡이 두도막형식 보다 큰 악곡들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구성된 것을 고려한다면 주요 3화음만으로 큰 악곡을 채우는 것은 화성적으로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대중음악에 사용되는 재즈형식의 화성이나 변칙적인 화성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화성의 음악적 이해요소를 지도하기에는 충분하리라 본다.

## 라. 빠르기

<표10> 빠르기 비교 분석

빠르기말 출판사	Adagio	Andante	Andantino	Moderato	Allegretto	Allegro	기타	미사용	합계
금성	0	0	1	12	1	0	0	5	19
미래엔컬쳐	0	0	2	11	1	0	0	4	18
천재	0	0	10	8	0	0	1	4	23
태림	0	0	3	1	1	0	0	9	14
태성	0	0	0	0	0	0	0	11	11
총횟수	0	0	16	32	3	0	1	33	85
비율	0	0	18.82	37.65	3.53	0	1.18	38.82	100.00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빠르기와 셈여림을 악곡의 표현을 위한 중요한 표현적 요소로 규정하였다. 6학년 음악교과서 ‘빠르기’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학년의 빠르기말을 분석한 결과 Moderato가 37.65%로 가장 많고 다음 Andantino의 곡이 18.82%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Allegretto, 기타 순이었다. 5종 교과서 모두 Adagio, Andante, Allegro의 빠르기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다양한 빠르기 형식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점이다.

## 마. 셈여림

<표11> 셈여림 비교 분석

셈여림표 출판사	미사용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이상	합계
금성	12	0	2	3	0	2	19
미래엔컬쳐	7	0	3	2	4	2	18
천재	6	2	5	1	6	3	23
태림	11	0	1	0	0	2	14
태성	9	0	0	1	0	1	11
총횟수	45	2	11	7	10	10	85
비율	52.94	2.35	12.94	8.24	11.76	11.76	100.00



셈여림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07 음악과 개정 교육과정에 셈여림 기호에 대해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셈여림 기호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5가지 출판사에서 셈여림 기호를 사용하지 않은 곡들은 45곡(52.94%)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미사용 곡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만들어진지 오래된 노래, 길이가 짧은 노래들이었고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창작동요들은 대부분 셈여림 기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더 세부적으로 각 교과서별 셈여림 기호가 사용된 제재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2> 교과서별 셈여림에 따른 제재곡 비교

출판사 셈여림표	금성	미래엔컬처	천재	태림	태성
미사용	산새가 아침을 빠꾸기 바누와 잠보 브와나 아이 올레 아엘레비 카로부쉬카 마모 나쉬 이르 달레 달레 달레 키아 카하 키아 토아 가을 맞이 아름다운 나의 벗	체체 콜레이 과두 요 오 데사요 밤보 브와나 비행기 빙빙 돌아라 잠자리	학교중 줄루 자장가 모래알 작은 돌 아된고된 저 하늘 구름까지 할아버지 시계	꽃처럼 하얗게 봄바람 등을 타고 미소 하나가 되자 엄마야 누나야 푸른 바다 돌고래 음반 위의 천사 체체 콜레이 사자의 힘 잠보 브와나 금도끼 은도끼	난 네가 좋아 행복을 주는 해님 시마마 카 풍가 알라피아 아름다운 것들 꿈이 크는 책가방 반달 할아버지 시계 제멋대로 가는 시계
1가지			푸르다(mf) 당신께 기도름(mp)		
2가지	파랑새의 봄(mf, mp) 초록 바다(mf, mp)	연둣빛 세상(mf, mp) 끼리끼리(f, mp) 카시오페이아 (mf, mp)	봄(mf, mp) 초록 바다(mf, mp) 푸른 산 푸른 들 (mf, mp) 친구야(mf, mp) 연날리기(mf, f)	초록 바다(mf, mp)	
3가지	봄바람(mf, mp, p) 작은별(mf, mp, p) 종소리(mp, mf, f)	가을 들뜬(mp, mf, <) 종소리(mp, mf, f)	들국화(mp, mf, >)		동글동글 친구야 (mp, mf, <)
4가지		봄 오는 소리 (mp, mf, <, >) 섬마을(mp, mf, <, >) 산마루에서(mf, mp, < >) 금강산(mf, mp, < >)	새 나라 새 주인 (mp, mf, <, >) 봄 오는 소리 (mp, mf, <, >) 그럼 그리고 싶은 날 (mp, mf, < >) 구름(mp, mf, < >) 금강산(mf, mp, < >) 등대지기 (mp, mf, < >)		
5가지 이상	우주자전거 (mf, mp, f, <, >) 과수원 길 (mf, mp, f, <, >)	고향 땅 (mf, mf, f, < >) 나뭇잎 배 (mp, p, mf, < >)	과수원 길 (mf, mp, f, <, >) 별 가족 (mp, p, mp, < >) 겨울나무 (mp, p, f, < >)	과수원 길 (mf, mp, f, <, >) 나뭇잎 배 (mp, p, mf, < >)	우주자전거 (mf, mp, f, <, >)

전체적으로 기호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mp와 mf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너무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조금씩 여리고, 센 악곡의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바. 음역

<표13> 음역 비교 분석

음역 출판사	4음이하	5음	6음	7음	8음	9음	10음	11음이상	합계
금성	0	0	2	3	10	2	1	1	19
미래엔컬쳐	2	0	0	1	8	3	3	1	18
천재	0	1	2	2	6	7	3	2	23
태림	1	0	0	2	4	5	2	0	14
태성	0	0	0	0	3	4	3	1	11
총횟수	3	1	4	8	31	21	12	5	85
비율	3.53	1.18	4.71	9.41	36.47	24.71	14.12	5.88	100.00

음역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8음을 구성으로 한 곡이 31곡(36.4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9음이 21곡(24.71%)으로 나타났고, 10음이 12곡(14.1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c - d' 에 걸쳐 있는 곡들이 전체의 약 75%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이들이 적당한 노력으로 가창할 수 있게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각 출판사 별로 음역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4> 교과서별 음역에 따른 제제곡 비교

출판사 음역	금성	미래엔컬처	천재	태림	태성
4음 이하		체체 쿨레이 비행기		체체 쿨레이	
5음			줄루 자장가		
6음	작은별 아 엘 레비		학교중 당신께 기도를		
7음	초록 바다 잠보 브와나 키아 카하 키아 토아	잠보 브와나	초록 바다 등대지기	초록 바다 잠보 브와나	
8음	봄바람 과수원 길 뺨꾸기 바누와 아이 울 레 카로부쉬카 마모 나쉬 이르 달레 달레 달레 종소리 아름다운 나의 벗	고향 땅 과두 요 오 데사요 카시오페이아 가을 들판 빙빙 돌아라 잠자리 종소리	과수원 길 구름 들국화 모래알 작은 돌 아린고된 저 하늘 구름까지	봄바람 등을 타고 과수원 길 사자의 힘 금도끼 은도끼	풍가 알라피아 아름다운 것들 제멋대로 가는 시계
9음	우주자전거 파랑새의 봄	연둣빛 세상 섬마을 산마루에서	새 나라 새 주인 봄 푸르다 푸른 산 푸른 들 친구야 연날리기 겨울나무	꽃처럼 하얗게 미소 하나가 되자 푸른 바다 돌고래 음밤 위의 천사	행복을 주는 해님 시마마 카 꿈이 크는 책가방 우주자전거
10음	산새가 아침을	금강산 나뭇잎 배 끼리끼리	금강산 별 가족 할아버지 시계	나뭇잎 배 엄마야 누나야	동글동글 친구야 난 네가 좋아 할아버지 시계
11음 이상	가을 맞이	봄 오는 소리	봄 오는 소리 그림 그리고 싶은 날		반달

11음 이상의 곡은 총 5곡이 나오는데 2차 성정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면서도 좁은 음역대의 노래가 함께 실려 있어 다양한 음역대의 곡들을 배울 수 있게 제시하였다.

### 사. 형식

<표15> 형식 비교 분석

형식 출판사	8마디 미만	한도막	작은 세도막	두도막	세도막	벗어난 두도막	벗어난 세도막	합계
금성	0	4	2	8	4	0	1	19
미래엔컬처	1	3	2	9	2	0	1	18
천재	0	1	2	12	6	1	1	23
태림	1	1	0	5	5	0	2	14
태성	0	1	0	3	5	0	2	11
총횟수	2	10	6	37	22	1	7	85
비율	2.35	11.76	7.06	43.53	25.88	1.18	8.24	100.00

형식을 분석한 결과 학습할 단계에 맞게 다양한 형식의 곡이 나타나 있었다. 두도막 형식이 37곡(43.53%)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세도막 형식이 22곡(25.88%)으로 나타났고, 한도막, 벗어난 세도막, 작은 세도막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가창곡들이 대부분 2도막 및 3도막 형식을 기본적으로 띄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새로 실리게 되는 여러 가지 창작동요들도 이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 교과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6> 교과서별 형식에 따른 제재곡 비교

출판사 형식	금성	미래엔컬처	천재	태림	태성
8마디 미만		체체 클레이		체체 클레이	
한도막	잠보 브와나 아이 올 레 아 엘 레비 마모 나쉬 이르	잠보 브와나 비행기 빙빙 돌아라	학교종	잠보 브와나	시마마 카
작은 세도막	봄바람 작은별	금강산 잡자리	금강산 줄루 자장가		
두도막	산새가 아침을 파랑새의 봄 빼꾸기 바누와 카로부쉬카 달레 달레 달레 키아 카하 키아 토아 아름다운 나의 벗	봄 오는 소리 연꽃빛 세상 섬마을 고향 땅 파투 요 오 데사요 나뭇잎 배 끼리끼리 카시오페이아	새 나라 새 주인 봄 오는 소리 푸르다 친구야 별 가족 들국화 모래알 작은 돌 당신께 기도를 아틴고턴 저 하늘 구름까지 등대지기 겨울나무	봄바람 등을 타고 나뭇잎 배 엄마야 누나야 사자의 힘 금도끼 은도끼	풍가 알라피아 아름다운 것들 반달
세도막	우주자전거 과수원 길 가을맞이 종소리	산마루에서 종소리	봄 과수원 길 구름 푸른 산 푸른 들 연날리기 할아버지 시계	꽃처럼 하얗게 미소 과수원 길 하나가 되자 푸른 바다 돌고래	동글동글 친구야 꿈이 크는 책가방 우주자전거 할아버지 시계 제멋대로 가는 시계
벗어난 두도막			그림 그리고 싶은 날		
벗어난 세도막	초록 바다	가을 들뜬	초록 바다	초록 바다 음반 위의 천사	난 네가 좋아 행복을 주는 해님

## I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효과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의 지도내용, 학습자의 이해도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수업의 매개체가 되는 교과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음악교과서의 비교 분석은 효과적인 수업이 되게 하는 중요 요소임에 분명하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6학년 5종 음악교과서를 이해영역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출판 태성, (주)금성출판사, (주)미래엔 컬처그룹, 태림출판사는 단원 구성식으로 되어 있고, 천재교육은 제재곡 나열식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재곡 나열식 구성 방식은 교사의 지도 편의성이 좋고, 학습 내용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내용구성이 다소 산만하고, 가창 위주의 음악 수업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둘째, 박자를 종합 분석해 본 결과 4/4박자가 48.2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6/8박자 18.42%, 12/8박자 11.4%, 3/4박자, 2/4박자, 변박자, 2/2박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많은 곡들이 몇몇 박자에 치중되어 있었고, 다양한 박자의 제재곡들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체험을 요구하는 개정 음악과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본다.

셋째, 조성을 비교한 결과 다장조가 24곡, 바장조가 23곡, 사장조가 19곡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직은 다장조가 가장 많이 나와 있다. 또한, 단조의 사용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까지는 학년별로 가르칠 조성(다장조, 바장조, 사장조, 가단조 등)을 제시해 주었는데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일정한 조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학년별·교과서별로 각각 자유롭게 조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계이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비교적 단순한 조표에 의한 조를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다장조, 바장조, 사장조의 곡이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5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공통악곡을 조사한 결과 과수원 길 3번(금성, 천재, 태림), 초록 바다 3번(금성, 천재, 태림), 우주자전거 2번(금성, 태성), 종소리 2번(금성, 미래엔컬처), 봄 오는 소리 2번(미래엔컬처, 천재), 금강산 2번(미래엔컬처, 천재), 나뭇잎 배 2번(미래엔컬처, 태림), 할아버지 시계 2번(천재, 태성)이 수록되었다. 세계민요로 제시된 곡들도 잠보 브와나, 체체 쿨레이처럼 공통으로 수록된 곡이 있었다.

비교적 공통악곡이 많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교과서별로 다양한 악곡을 수록한 점은 학교 급별에 따른 다양한 교육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학교 간 연계성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2.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검정된 초등학교 6학년 5종의 음악교과서들의 제재곡 중에서 이해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교과서별로 내용 구성 체계를 비교·분석 하였다.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보완하여 음악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필수 악곡의 개념이 사라지고, 교과서별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교과서 체제로 전환되며 곡의 다양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균형적이지 못한 빠르기말의 편성이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면 빠르기말의 중요성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교과서에는 빠르기말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제재곡의 구성체제를 분석한 결과 5종의 교과서 중에서 단원 체제로 되어 구성 되어 있는 교과서와 제재곡 나열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가 혼용되고 있었다. 음악교사가 가장 편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는 제재곡 나열식의 단순화된 교과서이겠지만 국제 교육 사조의 흐름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통합적 학습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단원 구성식 교과서가 더 많이 출판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역 사회와 학교 실정에 맞는 학습자료로 재구성될 때 음악 교육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 악곡의 표기를 간략히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는 빠르기말이나 셈여림 기호 같은 기본적인 교육과정요소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각 교과서별로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관 및 계획에 맞추어 교과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과서별로 중점을 둔 부분이 상당 부분 달랐음을 느꼈으며, 그에 따른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과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사가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교과서 선택을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음악 지식 전달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음악교과 활동에 중점을 두는지, 여러 가지 영역을 적당한 범위 내에서 골고루 학습하기를 원하는지 등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하는 기준을 잘 정하여 이를 교과서 선택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기초이론을 학습시킬 수 있는 교과서인지 각 교과서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 그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별로 활동에 대한 난이도가 각각 다르므로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이 연구는 6학년의 음악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인데 이를 토대로 6학년을 마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각 출판사의 교과서별로 어떠한 부분을 주의하며 지도해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이해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나머지 활동 및 생활화 영역을 통해 이해영역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해영역에서 제시된 개념을 어떠한 활동과 연계하여 익히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생활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겠다.

이상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6학년 5종 교과서를 이해영역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다양한 곡의 선정에 따른 배움의 기회의 다양성은 확인되었지만 균형적이지 못한 조성 편성과 정확하지 못한 심미적 빠르기의 표현 등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음악 교육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개정 시 이해영역 지도에 필요한 초석을 놓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권덕원. (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서울:교육과학사.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V. 서울:교육과학기술부.

신계휴 외. (2010). 초등학교 음악6. 서울:(주)금성출판사.

신계휴 외. (2010). 초등학교 음악6 지도서. 서울:(주)금성출판사.

양종모 외. (2010). 초등학교 음악6. 서울:(주)천재교육.

양종모 외. (2010). 초등학교 음악6 지도서. 서울:(주)천재교육.

주대창 외. (2010). 초등학교 음악6. 서울:도서출판 태성.

주대창 외. (2010). 초등학교 음악6 지도서. 서울:도서출판 태성.

장기범 외. (2010). 초등학교 음악6. 서울:미래엔

장기범 외. (2010). 초등학교 음악6 지도서. 서울:미래엔

조효임 외. (2010). 초등학교 음악6. 서울:태림출판사

조효임 외. (2010). 초등학교 음악6 지도서. 서울:태림출판사

### <논문>

곽현규. (2010).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초음악이론 교육의 개선방안.

한국음악교육공학회(SMET). 2010.8. 제11집.

김용기. (2012). 초등학교 5학년 음악 검정교과서의 이해영역 분석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혜정. (2010). 7차 개정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제재곡 분석연구(5, 6학년 가창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정수. (2007).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6학년 음악 교사용 지도서 비교 : 이해영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인국. (2010). 음악교육의 중요성과 지향점. 대전:중도일보. 2010.4.26.
- 신성희. (2010).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분석 연구(3, 4학년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대학원.
- 조용흠. (2008).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4~6학년 음악 교과서 분석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 최윤경. (2010). 음악게임을 활용한 초등음악 이해영역의 학습지도 방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A B S T R A C T

An analysis of Korean elementary school music  
textbooks  
for the 6th graders focused on comprehension  
area  
under the revised 7th national music curriculum

Choi Young-sik

Major in elementary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 Chi-no

As one of the subjects for elementary school, music is so essential that it is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many countries. In Korea, the subject of music has been taught by law since the beginning of public education because music offers aesthetic experience of feeling beautiful sounds from the heart in many ways, which helps develop human minds properly building up one's character

fully. This way, since the music subject is equipped with requirements to meet the principle of education presented by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it continues to exist despite the change of curriculum.

Thu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comprehension area, especially theoretical part, of music subject, the researcher analyzed how each of the comprehension area for 6th grader is presented in 5 kinds of music textbooks under the revised 7th official curriculum

The result of analysis revealed learning compared to the 7th official curriculum and that theory education is an important learning object in that it becomes the starting point of music teaching and learning of all kinds as the basis for improving the capability of creative expression.

In revised 7th curriculum, tunes published have varied in kind generally with a relatively higher portion of traditional Korean music, predominantly including four-four time among many kinds of time. In terms of scale and harmony, tunes in C major were carried most and much more diverse chords were used compared to the 7th curriculum, also showing omission of tempo signature or dynamic marks. As to frequency range, the most tunes had one octave with binary form.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it is possible to deliver the lesson of music theor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re comprehensively and intensively through differentiation suited for the students, unity of music theory lesson with practice, introduction connectivity to modern music and mastery over the basic concepts of music by developing music theory texts meeting their demands and explaining music theory in musical compositions. Besides, with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of textbooks in revised 2007 curriculum, it was also found that larger scope has been available for teachers in choosing textbooks in accordance with their view of education and teaching plan.